

동북아 지역 木簡 기록 문화의 특징 小考

A Comparative Study of Wood Slip Excavated Literature, Between East Asia Area

저자 (Authors)	강윤옥 Youn-Ok Kang
출처 (Source)	인문과학연구논총 , (29), 2008.12, 53-66 (14 pages) THE JOURNAL OF HUMANITIES , (29), 2008.12, 53-66 (14 pages)
발행처 (Publisher)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Humanities Myong Ji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88717
APA Style	강윤옥 (2008). 동북아 지역 木簡 기록 문화의 특징 小考. 인문과학연구논총, (29), 53-6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동북아 지역 木簡 기록 문화의 특징 小考*

A Comparative Study of Wood Slip Excavated Literature, Between East Asia Area

강 윤 옥(Youn-Ok Kang)**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中·韓·日의 木簡 書體와 文字 |
| II. 中·韓·日의 木簡 내용 | V. 맺는 말 |
| III. 中·韓·日의 木簡 형태 | |

초 록

중국으로부터 木簡을 수용한 한국과 일본은 일부는 중국의 木簡 형식을 답습하였으나, 일부는 自國의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사용하여 왔다. 우선 한반도의 木簡만 보더라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출토된 수는 현저히 적지만 주목해야 할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木簡의 제작에 있어 중국의 多面體 木簡 '觚'라는 漢簡형식을 완전히 模倣한 것이 존재하는 한편, 木簡의 길이와 제작 형식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면이 있다. 또한 韓·中·日에서 공통으로 출토된 典籍類 論語 木簡은 習書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것과 기재양식·크기·서체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반도에서 중국 木簡을 직접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그 수용한 것이 독자적인 스타일로 창출되고, 그 스타일이 일본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Scripting letters on wooden slip for narrative material prevailed east asia area during several centuries around era. These data contains not only practicality and artiness but also abundant cultural elements. Up to now, excavated 3 hundred thousand bamboo slips from China, 2 hundred thousand bamboo slips from Japan, and hundreds bamboo slips from Korea have special meaning for investigate cultural advance and exchange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주제어: 목간, 목간 서체, 목간 문자

Wooden Slips, the Analects, Combined Use of Paper and Wooden Slips, Calligraphy, Handwriting Practice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학술진흥재단(KRF-2007-327-A00520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yokang@mju.ac.kr)

논문접수일자: 2008년 11월 15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16일

I. 들어가는 말

동북아 지역의 韓·中·日 삼국은 역대로 古籍 정리 작업을 통해 많은 문헌을 보전해오고 있다. 오랜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문헌이라는 형식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수량 또한 방대하여 '浩如煙海'라는 말로 형용되곤 한다. 이러한 문헌 자료는 일반적으로 通行本文獻과 出土文獻 두 가지로 구분된다. 通行本 문헌이란 저술된 후 散失됨이 없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문헌을 말하며, 出土文獻은 기록 당시의 문헌이 도중에 失傳되었다가 고고학적 발굴 등의 경로를 통해 재발견된 문헌을 말한다. 이러한 문헌은 著述 당시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지하에 장기간 埋藏되어 있었던 관계로 내용이나 문자가 改作없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1차 史料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는 出土文獻 발굴 작업이 한창이며, 특히 대량의 木簡 발견으로 지금까지의 문헌·역사·사회·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고대에 즐겨 쓰던 簡牘이라는 書寫 재료는 대나무와 나무였다. 대나무는 가볍고 잘게 쪼개지는 性質과 耐久性을 가지고 있으며, 부피가 크지 않은 장점이 있어 書寫者들이 특별히 선호하였다. 그러나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 중국의 건조지대나 북방지역에서는 버드나무를 書寫재료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재료는 간(簡)보다 폭이 넓고 두꺼워 '독(牘)'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불려졌다. 이것이 한반도를 經遊해 일본까지 전파되었으며 현재 중국학계에서는 前者를 '죽간(竹簡)' 後者를 '목독(木牘)'이라고 부르며, 통칭하여 '간독(簡牘)'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는 竹簡에 기록된 것이 出土된 바 없다. 한국의 경우 소나무[松], 일본의 경우에는 삼나무[杉]나 회나무[槐]로 만든 '목독(木牘)'에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를 '목간(木簡)'이라 칭하고 있다.¹⁾

현재의 簡牘 出土 狀況으로 보아 중국은 적어도 3세기 後半인 西晉時代 初까지 木簡을 사용하였고, 한국은 4~7세기, 일본은 7~9세기 경에 木簡 사용이 盛行했던 사실이 밝혀졌다.²⁾ 통상 지역 간의 문화가 移轉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게 되지만, 과학 예술 등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그 민족이 사용하는 문자가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의 古代 遺跡地에서 발견된 木簡 出土자료는 같은 한자 영역권에 속하는 중국과의 역사 문화적 連繫性을 검토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로 생각된다.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出土된 木簡의 형태, 내용, 자체 및 문자 사용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1) 본고에서는 중국의 명칭인 簡牘 역시 竹簡과 나무인 木牘을 통칭하므로 韓·中·日 삼국을 아우르는 용어로는 木簡이 보편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하 목간이라는 명칭으로 표기함.

2) 보다 상세한 중국과 한국의 목간 出土 현황은 강윤옥, “中·韓 兩國의 簡牘 사용과 『論語』”, 中國語文論譯叢刊, 제24집(2008)을 참고하기 바람.

II. 中·韓·日의 木簡 내용

1. 중국의 木簡 내용

중국에서 木簡이 발굴되었다는 문헌 기록은 前漢 武帝 말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가장 이른 시기의 실물은 1978년 이후부터이다. 木簡 발굴은 1901년 2월 Mark Aurel Stein이 新疆 尼雅古城에서 西晉시대의 木簡과 殘紙를 발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³⁾ 그 후 스웨덴의 Sven Hedin, 일본의 오오다니(大谷)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찰단이 新疆이나 甘肅 일대의 발굴 작업을 통해 상당 수량의 木簡 문헌을 발견하였다.⁴⁾ 최근 1970년대 이후 木簡 출토 수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秦漢과 三國·魏晉시기의 문헌 공백을 메워 주고 있다.

현재까지 볼 수 있는 중국 木簡의 내용은 크게 典籍과 文書類로 분류할 수 있다. 典籍類는 諸子百家, 占卜術數 및 詩賦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漢書·藝文志』에 실린 분류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木簡 文書類의 예로는 1959년 甘肅省 武威縣 後漢시대의 묘에서 출토된 儀禮, 1975년 湖北省 雲夢縣의 秦墓에서 출토된 秦律 등이 있다. 그 내용은 法律·書籍(儀機·兵書·醫書)·遺策 등과 皇帝의 명을 적은 冊書·制書·詔書 등의 종류가 있다. 文書類는 크게 6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1) 書檄類는 오늘날의 通用文과 같다. 그 가장 큰 특징은 通行性을 구비하였으며 각종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종류는 書·檄·記·教·傳·致 등의 異稱이 있으며, 통행증인 '傳'은 魏晉 이후 '過所' 등으로 불리는 등 명칭의 변화가 있었다.
- 2) 簿籍類의 簿는 사람 혹은 물건의 수량을 위주로 기록한 반면, 籍은 대부분 사람이나 물건을 위주로 하고 수량을 보조로 기록하였다. 삼국시대 이후에는 점차 통칭하여 '簿'라고 하였다. 簿籍類 중에는 지금의 會計文書類와 統計文書類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도 있다.
- 3) 律令類는 지금의 法典과 같이 대부분 條文형식으로 존재하며, 律·令·科·品·約·式 등 그 수가 매우 많다. 問答형식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刑法부분에 대한 내용이 위주이고, 민사관계와 소송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4) 錄課類는 사실 기록을 위주로 하고 統計 수치를 함께 기록하고 있으며, 案·錄·刺·課 등의 명칭으로 구분하였다. 증명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書檄類나 簿籍類와는 구별된다.
- 5) 符券類는 契約文件에 속하고 새김 혹은 선을 이용하여 契約을 표시하여 信用을 나타낸다. 조각으로 符合되는 것은 契卷이라 하는데 簡文에서는 이를 '符' 혹은 '券'이라고 한다.

3) 이에 대해서는 富谷至 編著, 流沙出土의文字資料(京都大學出版社, 2001)에 잘 정리되어 있다.

4) 小田義久 責任編輯, 大谷文書集成(壹)~(參)(法藏館, 1984, 1990, 2003)이 출판되었다.

- 6) 檢楬類는 標議文書이다. 檢은 통상적으로 封泥의 틀을 만들어 분명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각종 물건과 문서를 봉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楬은 오늘날 상표와 같은 木牌이며, 물품 혹은 문서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쓰였다.

2. 한국 木簡의 내용

1975년 신라의 首都였던 경주의 雁鴨池에서 처음 고대 木簡이 발굴된 이후,⁵⁾ 9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매년 木簡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木製 遺物이 잘 보존된 低濕地에 대해 고고학자들이 주목하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木簡은 약 350점 정도 출토되었다.

이중에서 평양 일대 樂浪郡 유적에서 발굴된 木簡은 중국의 漢代 木簡으로 漢四郡의 한반도 진출로 인해 한국 고대사회가 매우 일찍부터 중국의 木簡 書寫방식에 접하였음을 알게 하는 자료이다.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으로는 일제시대 彩篋塚에서 출토된 死者에 대한 貢獻物과 奉祭者를 기록한 木牘을 비롯해⁶⁾ 해방 이후에도 평양시 樂浪구역 일대에서 『論語』 제11권, 제12권 전문(全文)을 기록한 '대쪽뫼음'이 발견된 바 있다.⁷⁾ 따라서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이미 한반도에서도 漢四郡과의 교류를 통해 직접 木簡을 書寫재료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木簡의 사용시대가 중국과 다르기는 하나 중국에서 수용하였기 때문에 내용의 대다수 上述한 중국의 分類法에 적용이 된다.

- 1) 典籍類: 2001년 경상남도 金海市 鳳凰洞 저습지에서 발굴된 木簡에 『論語·公冶長』이 4면의 觚에 書寫되어 있다.⁸⁾ 뿐만 아니라 2005년 仁川市 桂陽山城에서 발굴된 3-5세기의 『論語』木簡도 이 종류에 해당한다.
- 2) 書檄類: 官·私 문서로 형식은 고대 중국의 書檄과 유사하다. 『韓國의 古代木簡』 147호 木簡이 대표적이며,⁹⁾ 이 木簡 중의 '朋南漢城道使'는 지위가 비교적 높고 이 文件을 만들고 발송한 자이므로 公文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밖에도 149호와 305호 木簡 등은 書信類이나 훼손이 심하여 그 뜻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¹⁰⁾

5) 李基東, "『雁鴨池』에서 出土된 新羅木簡에 대하여", 慶北史學, 1(1979).

6) 임기환, "彩篋塚出土木札", 譯註韓國古代金 1(1992), pp.447.

7) 류병홍, "고고학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 조선고고연구 83(1992), p.2.

8) 제1면: 我不欲人知加諸我也, 吾亦欲無加諸人, 제2면: 子謂子產: 有君子之道四焉. 其行, 제3면: [三]已[之], 無慍色. 舊令君之政, 必以告新. 제4면: 遠之, 何如? 子曰: 清矣, 曰仁矣乎! 曰.

9) 韓國國立昌原文化財團研究所, 韓國古代木簡(濊貊出版社, 2004). 이하 『韓國古代木簡』에서 인용된 목간은 號만 표기하기로 한다.

10) 제1면: 大鳥矩郎足下萬行白之, 제2면: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 제3면: 惠賜教在之後事者命書, 제4면: 使內卜.

- 3) 簿籍類: 한국의 木簡은 計帳 문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체로 주소, 인명, 신분, 가족 구조, 田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¹⁾ 『韓國의 古代木簡』에 수록된 1호부터 96호까지 대부분이 이 분류에 속한다.¹²⁾
- 4) 標簽類: 물품 꼬리표로 한국 木簡 중에 수량이 가장 많다. 이런 標簽은 대부분 날짜, 물품 그리고 수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出納簿의 역할도 하므로 計帳類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 木簡의 外樣은 위와 아래 끝부분에 모두 줄을 매기 위한 구멍이 있는데, 중국 고대 木榻의 끈 연결 방식과 같다. 하지만 중국의 木榻에 자주 보이는 머리 부분의 그물 문양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¹³⁾

이 밖에도 木簡 기록 양식에 있어 干支로 年을 표기하고, 그 뒤 차례로 月과 日을 기재하는 형식은 朔日干支와 序日干支를 많이 사용하는 중국 木簡의 표기 방식과는 다른 부분이다.

3. 일본 木簡의 내용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전에 11個所의 遺跡에서 木簡이 출토된 바 있다. 본격적으로 발굴된 것은 1961년 나라(奈良)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로 나라시(奈良市)의 평성궁터에서 40점이 일괄 출토되면서 부터이다. 2003년 이들 木簡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이 다시 인식된 바 있다.

지금까지 출토된 木簡은 약 31만점, 유적수만 해도 약 970個所가 넘는다. 木簡의 사용연대는 대부분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중반의 것이나 최근에는 중세·근세(12세기 이후)의 木簡 출토량이 증가하고 있다. 중·근세의 木簡은 내용이 주로 荷札이나 呪符 등이며, 상내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文書木簡은 9세기 이전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木簡 시대는 9세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木簡이 출토되는 遺跡地는 주로 문자를 쓰고 있던 곳이다. 즉, 藤原宮·京, 平城宮·京,¹⁴⁾ 長岡京, 平安京 등의 都城유적이나 大帝府·多賀城跡·下野政府 등의 지방관아, 東大寺·藥師寺·山田寺 등의 寺院유적 등이 중심이며, 일반 聚落유적에서 출토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일본 木簡은 그 기재내용면에서 크게 文書木簡인 書檄類, 標簽類, 其他로 분류된다.

11) 192호: 郎席長十尺, 細次牀七件 ㉠ 문자 중의 '次牀'은 두 글자가 한 글자로 합하여진 형태로 보고 해석해야 할 듯하다. ㉠의 이체자이며, "件"은 양사이다. 295호, 정면 제1행: 西口後巷 已達已斯口 依活㉡口後口, 제2행: 歸人中口四小口二 邁羅城法利源水田五形 배면: 西口中口夷.

12) 3호,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17호 "(上缺)前谷村 阿足只口."이다. 28호 정면으로 "古地伊骨利村 阿那衆智卜利古支."

13) 185호 정면: "之類急使條高城驢一匹(?)", 배면: "辛口洗宅口口口元一品仲上."

14) 평성궁 유적내에서는 약 48,000점 이상의 목간이 실무를 행하는 여러 관아 내부의 우물, 구덩이 혹은 그 주위의 도랑 등에서 출토되었다.

- 1) 書檄類: 사람이나 기관에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木簡, 문서 기록, 장부나 전표 등의 종류로 구분된다. 고대 일본의 木簡 문서행정은 7세기에 이미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으며, 특히 長屋王家木簡과 二穡大路 木簡은 8世紀 前半의 황실 政治史도 기록하고 있다.
- 2) 標籤類: 물건과 짝을 지어 사용하던 木簡으로, 물건에 붙여졌던 下札 木簡과 창고 등에서 물품을 보관할 때에 정리하기 위해 내용 등을 기록한 보관정리용 付札로 나누고 있다. 일본은 8세기 初頭에 木簡을 이용한 分類행정이 촌락에까지 浸透하여 지방사회에서도 郡符木簡, 勝示札, 告知札 등이 왕성하게 사용되었다.
- 3) 其他類: 낙서나 문자 연습을 한 習書, 전염병막이 등의 기원을 위한 주술용 부적인 呪符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木簡 중에는 763 년과 764년경에 法華寺 평성궁내에 있던 大膳職에 콩·식초 등의 식품을 청구하는 내용의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평성궁에 있던 淳仁天皇과 대립하여, 法華寺에 들어와 있던 孝謙 太上天皇에 從事하고 있던 女官에게서 나온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일상적인 사무연락에 木簡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曷時의 文書處理와 관련하여 封緘木簡이라 불리는 木簡이 발견된 일도 중요한 成果이다.

Ⅲ. 中·韓·日의 木簡 형태

동북아 지역의 木簡 제작 형식은 내용과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물론, 용도에 따라 길이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一尺 정도이다. 典籍의 내용을 적은 文獻木簡, 행정 사무를 적은 文書木簡이 있는가 하면 물품꼬리표로 사용한 木牌木簡도 있다. 이 지역의 文獻이나 文書 木簡은 대부분 2단으로 발처럼 엮였으며 접었을 때는 두루마리 형태가 된다. 그리고 물품의 꼬리표로 사용된 木牌木簡은 위 혹은 아래에 구멍을 뚫어 끈을 꿰어 사용하거나, 흠을 파서 묶은 끈이 잘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밑을 뾰족하게 깎아 썩기모양으로 물품에 꽂아 사용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듯 外樣적인 면에서는 韓·中·日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국가 간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 중국의 木簡 형태¹⁵⁾

秦·漢시대 표준 木簡의 규격은 길이 약 23cm 폭 약 1cm 두께 0.2~0.3cm로¹⁶⁾, 보통 30~40

15) 목간 사용의 발원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하 편의상 중국에 관한 내용을 먼저 서술함.

16) 漢代의 도량형으로 약 23cm가 1尺이며, 0.3cm가 1分이다.

字를 기준으로 하여 많으면 50字 정도의 글씨를 써 넣었다. 이러한 木簡을 一尺簡으로 부르며 주로 書籍 및 公的·私的 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되었다. 木簡 규격에서 가장 짧은 것은 주로 실용적인 용도로 제작된 符檢類이다. 6寸(약15cm)인 符는 신분증의 일종이고, 木檢은 문서나 물품 수송시에 상대방의 주소와 수신일 및 전달방식 등을 記載한 꼬리표와 같은 것이다. 이는 당시 모두 손쉽게 携帶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그런데 典籍類인 『漢簡論語』의 길이는 16.2cm로 漢代의 尺으로 약 7寸에 해당하는데, 이는 표준 문헌 木簡에 비해 매우 짧은 길이이다. 이같이 짧은 論語簡이지만 漢代簡의 표준 규격에 맞추어 제작된 결과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鄭玄은 『論語注』序文인 『鄭玄注論語序』에서 “『春秋』는 2尺4寸(약55cm), 『孝經』은 1尺2寸(약28cm), 『論語』는 8寸(약18cm) 簡에 쓴다.”라고 밝혔다. 이는 儒家 經典의 중요도에 따라 簡牘의 길이를 조정한 결과로, 五經의 하나인 『春秋』는 2尺4寸의 매우 긴 簡에 기록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定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1959년 甘肅省 武威縣 磨咀子の 6號 後漢墓에서 출토된 『儀禮』 가운데 甲本の 木簡은 길이 55.5~56cm 폭 0.75cm, 丙本은 길이 56.5cm 폭 0.7cm인데, 이 길이는 漢代의 尺으로 2尺4寸에 맞먹는다. 이는 儒家 經典의 제작 방식이 현실적으로도 規制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漢代의 木簡은 初學者의 學習用뿐만 아니라, 국가 公文書로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1974년 居延의 甲渠候官 유적에서 발견된 ‘候史廣德坐罪行罰檄’과 같은 ‘檄’목간이며, 대부분 多面木簡의 형태이다.¹⁷⁾ ‘檄’의 원래 뜻은 多面으로 제작하여 書寫할 공간을 확대한 것을 말한다. 이는 軍의 명령을 하나의 木簡에 써서 문서전달의 편리와 완결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었다. ‘候史廣德坐罪行罰檄’도 무려 130cm이지만 내용을 하나의 면에 다 쓸 수 없자, 木簡의 單面이 삼각형인 多面木簡 형태로 만들어 두 면에 걸쳐 書寫하고 있다.

특히 이 ‘檄’ 목간은 신라의 論語 木簡제작에도 영향을 주어 하나의 木簡에 書寫내용을 완결 짓기 위해, 木簡을 ‘觚’ 형식의 多面體로 만들고 길이도 1m 이상으로 늘린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사회의 木簡은 그 연원이 漢代의 簡牘文化에 있지만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제작형태를 택한 사실도 알 수 있다.¹⁸⁾

2. 한국의 木簡 형태

앞에서 거론한 바대로 한국 木簡의 형태는 대부분 단면이 4각형 내지 3각형인 ‘多面木簡’의 비중이 매우 높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觚’ 형식의 학습용 多面木簡이 仁川 桂陽山城과 金海 鳳凰洞 遺跡에서 발굴된 바 있다.

17) 大庭脩, 漢簡研究(同朋舍, 1992), pp.108-124.

18) 윤선태, “목간으로 본 신라 왕경인의 문자생활”,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제28호(2007), pp.117-119.

仁川 桂陽山城 木簡은 五面木簡으로 다섯 개 면에 『論語』의 公冶長편이 기록되어 있다.¹⁹⁾ 그러나 아쉽게도 上·下段이 파손되어 全貌를 알 수는 없지만, 현존 길이는 14cm이고 각 면의 폭은 1.5cm이다. 원형을 復原하면 그 길이가 1m 이상이나 되는 장대한 木簡이 된다. 金海 鳳凰洞 論語木簡의 제작연대는 출토 層位가 불확실해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6~7세기의 것으로 보고 있다. 桂陽山城 木簡과 달리 단면 사각형의 四面木簡으로 『論語』의 ‘公冶長’ 편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 역시 上·下段이 파손되어 全貌를 알 수 없다. 이 鳳凰洞 論語 木簡은 현존 길이가 20.9cm에 불과하지만, 원형을 復原하면 그 길이가 1m 이상이나 되는 長大한 木簡이 된다. 이와 같은 크기의 四面木簡 3개만 있으면, 論語 ‘公冶長’ 편을 모두 完結할 수 있게 되는데²⁰⁾ 이러한 형식은 漢代의 『急就篇』 木簡이 三面木簡 하나에 1章씩 내용을 완결적으로 기록하고, 각 章들이 기록된 木簡 한 벌을 끈으로 연결해 典籍의 내용을 完備하였던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 중국이 漢代에 ‘儒家經典’을 기록한 木簡이 일반적인 문서나 장부를 기록한 木簡보다 길이가 더 길게 제작되었던 점도 한국고대의 論語木簡이 다른 木簡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長大해진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²¹⁾ 이렇듯 한국의 多面木簡은 漢代의 觚목간들과 형태나 기능상으로 분명히 맥이 닿아있다. 이는 한국 초기의 木簡文化가 중국 漢代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成立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밖에 중국에서는 木簡과 더불어 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木簡을 封檢하는데 사용된 封泥가 다수 발굴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封泥가 발굴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紙木併用期에는 封泥로 木簡을 封檢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印章을 종이에 찍어 전송 사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3. 일본의 木簡 형태

일본도 고대의 史料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木簡 발견이 학문 연구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며, 일본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불가결한 史料가 되었다. 木簡의 형태는 文書木簡에 많이 쓰인 短冊形(장방형)이 기본으로, 上下양단 혹은 左右양쪽에 절입부를 두어 묶어 두기에 편리하거나, 下段을 뾰족하게 만든 것 등이 있다. 지금까지 日本의 木簡 형태는 중국처럼 특정 용도에 따라 일정한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대부분 길이 20~30cm 폭 2~4cm 정도로 제작한 것으로 미루어 사용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設이다.²²⁾

19) 선문대 고고학연구소, 앞의 보고회 자료를 참조 바람, 2005.

20) 橋本繁, “金海出土‘論語’木簡と新羅社會”, 朝鮮學報 제193호(2004).

李均明, “中漢簡牘比較研究-從中國簡牘的類別談起”,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21) 李均明, 위의 논문, p.188.

이균명은 발표 후 있었던 종합토론에서 한국고대의 논어목간과 형태, 길이가 유사한 경전을 기록한 목간이 중국에서 출토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나 중국 木簡에서 사용된 내용이나 길이와 관련된 규격이 주로 일본의 지방 木簡 중에서 그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郡符 木簡을 폐기할 즈음 칼로 두 쪽 혹은 세 쪽으로 절단한 후 다면체 목각형을 만들어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된 길이는 모두 60cm 전후이며, 2尺이었다. 八幡林 유적 木簡과 같이 5cm를 넘는 폭도 있지만, 모두 60cm 前後의 길이인 것은 郡符의 길이를 2尺에 맞추는데 집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漢代 木簡은 통상 길이 2尺으로 軍書에 썼으며 「檄」이라 하였다. 또 漢에는 「尺一詔」라는 말이 있었는데 보통의 문서가 1尺인데 반해, 皇帝의 詔는 1尺1寸의 木簡을 사용한 데서 생긴 말이다. 이외에도 漢代 木簡의 길이가 書冊의 格을 정하는 예 (春秋는 2尺4寸, 孝經은 1尺2寸, 論語는 8寸 등)는 앞서서도 거론한 바 있다.

이러한 漢代 木簡의 특징은 일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즉 從來의 木簡研究는 일본의 木簡에 일정한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면밀히 살펴보면 통상 木簡문서가 1尺 정도의 길이라면 郡符는 그 2배인 2尺을 의식적으로 採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한국의 識字教本用 木簡 길이가 상당히 길었던 것도 같은 상황이었다. 識字教本の 제작 목적이 글자를 외우는 것이지 내용 이해가 아니었음은 앞에서 거론한 바 있다. 日本 宮都나 德島縣 觀音寺유적에서 폭 1.9~2.9cm 길이 65.3cm로 摺書한 論語 學而篇이 28점 발견된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렇듯 일본 지방의 遺跡에서 출토된 『論語』 木簡이 摺書의 요소를 질게 가지는 점과 중국과 한국에서 출토된 識字教本으로서의 『論語』 木簡은 용도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시작된 木簡제작 용도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음을 推論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된다.

木簡의 제작형식에 있어서는 三國이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끈을 맨 쪽이 위이고 위에서부터 글씨를 썼으며, 홈에 끈을 매어 빠지지 않게 불품에 꿰어 사용한 반면 한국의 韓安山성 木簡은 이와 반대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일정한 쪽의 木牌를 만들어 글씨를 쓰고 나머지 여백 부분에 홈을 파서 끈으로 맨 것이다. 木牌木簡의 길이는 文書木簡의 길이보다 짧아서 대개 15~23cm 폭은 2~4cm 정도로 중국·일본의 木簡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7세기에 사용한 文書木簡의 경우 1行書의 것이 대부분을 점하나 8세기에 이르러서는 廣幅에 여러 行을 기록하였으며, 文書木簡은 적고 記錄簡이 늘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2) 館野和己 「日本木簡の特殊性」 大庭修 『木簡 -古代からのメッセージ-』 大修館書店, 1998년.

IV. 中·韓·日의 木簡 書體와 文字

漢 武帝의 漢四郡 설치를 계기로 지리·역사·정치적으로 중국과 밀접하던 고구려는 백제, 신라에 비해 일찍이 문자 자료를 생성하였다. 백제는 6세기까지 줄곧 고구려와는 적대관계였기 때문에 백제 문자의 流入 통로는 중국 南朝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토된 백제 문자의 본격화를 논할 경우 6세기가 하나의 논점이 되고 있다. 이는 현재 발굴된 木簡의 시기가 백제는 6세기에서 7세기 중엽, 신라는 6세기에서 10세기 초, 일본이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라는 점도 대략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은 동북아 지역의 문자가 情況上 중국→한국→일본이라는 전파과정을 거쳤음을 推論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뒷받침할 한국 고대문자 기록자료의 부재로 역사적 사실 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최근 한국에서 木簡 문자 출토가 증가함으로써 韓·中·日 삼국의 木簡 문자의 기록 내용 비교와 특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1. 中國 木簡의 書體와 文字

秦始皇에 의해 戰國시대 7국의 相異한 문자는 小篆體로 통일되었으나, 이 때 작성된 木簡은 篆書를 간략화한 隸書體를 사용하였다.²³⁾ 이 시기 篆書에서 隸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서체를 秦隸 또는 漢隸로 부르기도 한다. 草書는 秦漢 교체기 무렵과 前漢시기에 작성된 木簡에서 많이 나타나며, 後漢 및 三國시대의 木簡에는 楷書體가 쓰였다. 당시의 楷書는 후대의 楷書처럼 정형화되지는 않았고 난지 隸書體의 범위 내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를 취할 뿐이었다. 따라서 이를 “隸楷”로 부르기도 하며 한국과 일본의 木簡 서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 木簡 문자의 특징으로는 通假字·避諱字·合文字²⁴⁾가 많이 쓰인 것을 들 수 있다. 通假字는 발음이 완전히 같거나 비슷한 음가를 지니는 글자를 빌려 쓰는 현상이므로 특히 전국시대 楚簡 및 秦簡 그리고 漢代 初期의 木簡에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定州漢簡論語』의 경우 특히 通假字와 異體字 및 略字·脫字·誤字가 700여 곳 발견되는데, 전체 글자수 7,576字的 약 10%에 해당하는 분량이기도 하다.²⁵⁾ 이러한 경향은 前漢 中期 이후 점차 감소하지만 後代에도 지속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은 木簡 기록시 誤字가 생길 경우 한국이나 일본처럼 삭제한 후 다시 쓴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글자를 削除하여 생긴 공간을 〇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 예컨대

23) 隸書는 篆書가 필획이 복잡하고 곡선이 많아서 실용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여 자획을 간략히 하고 곡선 필획을 직선화한 것이다.

24) 合文字의 경우는 두 개의 글자를 상하로 밀착 표기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글자처럼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해독시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초간 중의 “小人” “大夫” “二十” “三十” “之日” “之月” 등, 진간 중의 “之志” “貨貝” “牽牛”, 한간 중의 “[·L]” “[·L]” “正月” “俞兕” 등이 그러하다.

25) 보나 상세한 내용은 강윤옥, “定州漢墓竹簡『論語』의 文獻學的 가치와 文字學的 특성 연구”, 중국분학연구 제34집(2007) 참고할 것.

『定州漢墓竹簡論語』先進篇의 “季子然問, ‘仲由·冉求可謂[大臣]與?’ 子曰, ‘吾以子爲異之間, 會由與求○問. 所謂大臣○, 以道[事君, 不可][則]止. 曰與求也, 可[謂具臣]○.’ ○ ‘然則從之者與?’”²⁶⁾이 그것이다.

避諱字는 皇帝 또는 聖人의 이름에 쓰인 글자를 피한 후 이와 뜻은 같지만 音價는 다른 글자를 代用하는 현상이다. 秦簡 중에서 秦始皇의 이름인 “正”을 “端”으로, 漢簡 중에서 漢高祖의 이름인 “邦”을 “國”으로 표기한 예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張家山漢簡』중의 二年律令과 秦讖書에서도 확인되는데, 邦자는 1번도 나오지 않는 반면 國자만 22번이 나온다. 이러한 예 때문에 避諱가 아닌 당시의 일반적 用字 습관일 뿐이라는 견해를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劉邦이 漢帝國을 세우기 11년 전에 사망한 雲夢睡虎地 11號秦墓의 묘주 喜가 소장한 『睡虎地秦簡』에는 “邦”자가 28번 사용된 반면 “國”자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秦末까지 꾸준히 사용되던 “邦”자가 劉邦이 황제가 되면서 避諱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 닥치자 “邦”을 모두 “國”으로 바꾸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2. 한국 木簡의 書體와 文字

南韓 출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라 木簡의 서체는 고구려의 書法을 사용한 흔적이 보이며, 신라 金石文의 서체와도 유사한 필법이 많이 있다. 이때 신라 木簡에 사용된 서체는 楷書 위주이며 行草와 章草가 간혹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韓國의 古代木簡』제149호에 보이는 “再拜”라는 두 한자는 章草의 형태로 連筆하고 간략하게 써서 쉽게 판별하기가 어렵다. 이 비슷한 상황은 중국 초기의 木簡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敦煌漢簡』243A “再拜” 두 글자의 字形이 지나치게 간화되어 𠄎 字形이 만들어질 정도이다.

백제는 중국 南朝로부터 활발히 문자를 수용을 하여 신라와 일본에도 수출하였으며,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7세기에도 지속 심화되었다. 이는 木簡 문자자료를 통해서도 이같은 歷史性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部라는 문자는 고구려, 신라, 백제 王京의 지배자 집단의 단위였으며 특히 백제에서는 中央官署의 단위로 쓰였다. 먼저 고구려에서는 “部”와 “𠄎”라는 異體字가 共存하였으며, 백제에서는 “𠄎”의 예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반면 신라는 “部”가 절대적이었다. 일본에서는 職能집단을 나타내는 의미로 모두 “𠄎”로 표기되었으며, 8세기에 이르러 “マ”로 더욱 간화된 것은 동북아 삼국 단위문자의 變遷과정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곡물의 단위인 石도 신라에서는 제1획을 생략한 字를 사용한다. 이것은 “섬”과 “돌”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9세기에 이르면 생략된 획을 쓰지 않고 각각 “碩” “石”으로 구분해서

26) 이외에도 이러한 현상은 先進篇: 賜[不受命], ○貨殖焉, 億則居中. “와 衛靈公篇:” “[子曰: ‘君]子謀道不謀食. 耕也, 飢在其中○. 君子憂道不憂貧.”에서도 나온다.

사용하였다. 백제에서는 능산리 木簡에서 “送塩二石”이란 대목에서 石의 제1획이 생략된 예가 있으며, 쌍북리 木簡에서는 “一石”을 “石”으로 생략 표기한 예도 있다.

한국 木簡 字形구조도 湖南 長沙 走馬樓에서 나온 三國시대 吳簡과 같은 行草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韓國의 古代木簡』제3호, 제34호에 “婁”은 “𠄎”로 썼으며, 『韓國의 古代木簡』제17호, 33호, 44호의 “谷”을 “𠄎”으로 쓴 것이 모두 그러하다.

한국 木簡에도 通假字를 많이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韓國의 古代木簡』제158호 “芾八巷芾 卅三大舍麻斷? ㉠衣節草辛” 중의 “芾”은 “第”의 通假字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 木簡 앞의 8개 글자는 “第八巷第卅三大舍”로 해석되며, 문맥이 쉽게 통한다. 또한 중국 唐代的 정치적 변화 속에서 年을 載로 고쳐 사용하던 시기의 역사 흔적이 신라의 木簡 문자자료를 통해 捕捉되었다. 이 간이 한국의 고대 문자자료는 中·韓 兩國의 역사를 復原하는 자료로서 매우 소중한 것이다.

지금까지 韓·中·日의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類似제도를 논할 때, 史料의 공백이 가장 큰 것이 한국이었다. 최근 한국의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木簡 문자자료는 일본과 고대 한국이 공통된 문자를 가졌다는 실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3. 日本 木簡의 書體와 文字

일본 木簡의 서체는 대부분 楷書나 行書로 쓰였으며, 草書는 아주 드물게 쓰였다. 또한 가장 이른 시기에 사용된 7세기 木簡의 문자 배열은 크기가 고르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8세기는 활자와 같은 정렬함을 가지고 있다.

일본도 1차 史料인 木簡 문자가 발굴됨으로 인해 고대사 연구에 활력을 찾게 된 것은 한국과 같은 상황이다. 예를 들면 金石文에 7세기에는 郡에 해당되는 곳을 評, 군사의 장관·차관에 해당하는 職名을 評督·助督으로 한 예가 있다. 이로 인해 郡과 評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郡과 評은 시간적으로 다른 제도이며, 評에서 郡으로 移行했다는 이해, 郡과 評은 성격이 다른 것이며, 同時代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었다고 하는 이해로 크게 나누어졌고, 또 각각의 이해 속에서 다양한 說이 세워졌다. 결국 이러한 論爭에 증지부를 찍은 것은 등원궁터 출토의 木簡 이었다.²⁷⁾ 이곳에서 각지 都城으로 운반되어 온 貢物의 하찰 木簡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것들에 의하면, 己亥年(699)과 庚子年(700)에는 國 아래의 행정조직이 評이었다. 그에 반해 『大銅二年』에 의하면, 大銅二年(702)의 木簡에는 郡이 등장한다. 따라서 700년과 702년과의 사이에 評과 郡과의 경계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720년에 완성된 『日本書紀』는 최종적 編纂단계에서 지식인에 의해 評이 郡으로 고쳐졌다. 이처럼 木簡 문자는 評에서

27) 「己亥年 十月 上挾國 阿波評松里X 若佐國 小丹生評 『庚子年四月 木ツ里秦人申二斗』.

郡으로의 移行시기를 명확하게 밝혀줌과 동시에 통행본 문헌 『日本書紀』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고대 일본에서는 열쇠를 鑰이라는 문자로 사용하였는데 열쇠와 관련된 의미로는 신라와 고대 일본에서만 확인된다. 雁鴨地 木簡에서 이 자가 출토됨으로 인해 이 문자의 처음 사용지가 신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V. 맺는 말

竹簡이나 나무는 견고하고, 재이용이 가능하며,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고대 동북아 지역에서는 木簡에 문자를 기록하는 것이 盛行하였다. 중국은 戰國 시기에 竹簡을 선호하여 많은 문헌을 남겼고, 漢代에는 木牘에 행정문서나 부찰 등 다양한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이러한 木簡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해석되거나 재작성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1차 史料이기 때문에 고대 동북아 지역 사회에 대한 진면모를 연구하는데 있어 소중한 것이다.

本文에서 서문한 바대로 木簡사용의 진원지는 중국이다. 중국으로부터 木簡을 수용한 한국과 일본은 일부는 중국의 木簡 형식을 답습하였으나, 일부는 自國의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사용하여 왔다. 우선 한반도의 木簡만 보더라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출토된 수는 현저히 적지만 주목해야 할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木簡의 제작에 있어 중국의 多面體 木簡 ‘觚’라는 漢簡형식을 완전히 模倣한 것이 존재하는 한편, 木簡의 길이와 제작 형식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면이 있다. 또한 韓·中·日에서 공통으로 출토된 典籍類 論語 木簡은 摺書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것과 기재양식·크기·서체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반도에서 중국 木簡을 직접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그 수용한 것이 독자적인 스타일로 창출되고, 그 스타일이 일본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木簡의 대량 발굴은 고대의 동아시아적 특성이 더 이상 一國史의 범주 안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윤옥, “定州漢墓竹簡『論語』의 文獻學的 가치와 文字學的 특징 연구” 中國文學研究 제34집 (2007).
- 강윤옥, “中·韓 兩國의 簡牘 사용과 『論語』” 中國語文論譯叢刊 제24집(2008).
- 李均明·劉軍, 簡牘文書學, 廣西教育出版社, 1999.
- 大庭脩, 漢簡研究, 同朋舍, 1992, pp.108-124.
- 橋本繁, “金海出土‘論語’木簡と新羅社會” 朝鮮學報, 제193호(2004).
- 陳東, “關於定州漢墓竹簡論語的幾個問題” 孔子研究, 第2期(2003).
- 黃文弼, 羅布淖爾考古記(中國西北科學考察團刊之一), 北京大學出版社, 1948.
- 胡平生·張德芳, 敦煌懸泉漢簡釋粹, 上海古籍出版社, 2001.
- 唐明貴, “中國學者近半個世紀以來的『論語』研究” 古籍整理研究學刊, 第2期(2005).
- 河北省文物研究所, “河北定縣40號漢墓發掘簡報” 文物, 第8期(1981).
- 定縣漢墓竹簡整理, “定縣40號墓出土竹簡簡介” 文物, 第8期(1981).
- 甘肅居延居延考古隊, “居延漢代遺址的發掘和新出土的簡冊” 文物, 第1期(1978).
- 韓國國立昌原文化財團研究所, 韓國古代木簡, 濊貊出版社, 2004.
- 손영중, “낙랑군 남부지역의 위치 -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력사과학, 2006.
- 윤선대, “목간으로 본 신라 왕경인의 문자생활” 신라문화제희술논문집, 제28호(2007).
- 李基東, “雁鴨池』에서 出土된 新羅木簡에 대하여” 慶北史學 제1호(1979).
- 李均明, “中漢簡牘比較研究 - 從中國簡牘的類別談起” 『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